

# 바다 쓰레기 괴물들

빛과 어둠의 싸움!?



Over dit project

'세계로 여행하는 그림책 보트'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세계의 바다'에 대한 흥미를 일깨우고, 세계와 협력하여 바다를 지키는 소중함을 전달합니다.



# 바다 쓰레기 괴물들

## 빛과 어둠의 싸움!?



“우와와와!”바닷가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뭐야 넌?! 그만해!”



“나는 야, 박쥐 제왕!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이 한몸...

어둠의 괴물이야”

박쥐 제왕은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았어요.



박쥐 제왕 666 살



밤바다를 즐겨 날아다니는 밤의 제왕.



그러던 그때

“멈춰!

악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빨강맨이 혼내주마.

빨강 빔!!!”

“으악! 눈부셔! 빨강맨 네 녀석...”

그러더니 박쥐 제왕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외쳤습니다.

“오너라! 나는야! 어둠의 괴물!”





빨강맨 777 살



추억이 담긴 물건이 바다를 떠돌면서 마음을 가지게 됨.  
태양처럼 빛나는 빛의 괴물.



꿀렁꿀렁 등!

“부르셨습니까 제왕님”

오랜만에 바다 위로 올라오니 눈부시구려.



깊은 바다의 도로도릉

500 살





리제돈

30000살



한번 멋지게 보여주세요!

“박쥐 제왕, 나도 한판 날뛰어주마”

“제왕님~!”

“부르셨나요~?”

“우리 고깔 삼총사에게 맡겨만 주세요!”



개굴이 무한 살



야믹 37살



짹짹 카타미미  
333살



내가 타고 다니는 이거 멋있지?



아뉴 500 살

어디선가 어둠의 괴물들이  
와글와글 모여들어 빨강맨을  
에워쌌어요.  
빨강맨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기다리게 했구려 빨강맨. 내가 도와주지!”



파마 도사 300 살

머리를 꾸미느라 늦었구려.





"예~~~이! 빨강맨~~! "

이번에는 빛의 괴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해피 보이 5 살



왜들 그러고 있어요? 다같이 놀자요!

E agora, o Monstro de Luz acaba de chegar.

“내가 왔으니 이제 문제없어!”



메가메가 물고기 에일리언  
10000 살



“뭐야 뭐야?”

“배고파~!”

“내가 도와줄게~”



◆ 샌들리언  
555살



◆ 쓰레기 먹을랭 20 살



◆ 화단의 화당  
1.065살



바다 경찰관 고래피  
215 살

안녕하세요~



바다의 꽃푸와 사카피스

1 살



안녕하세요~

안녕~



침범~

파도를 일으키며 빛의 괴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어요.

바닷가는 꽤나 시끌벅적해졌어요.



바다 괴수 모사사우르스  
10000살

나쁜 녀석은 내가 깨물어주지!

제일 빠르게 날 수 있는 건 나야!



◆ 천사 텐보 무한 살

◆ 부표롱  
10000 살



◆ 이로도리 10 살



바닷가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늘에도 빛과 어둠의 괴물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트래시 버드 몬스터

5살



청소하는 새 스이초

150살



쓰레기 명왕 드래곤

12348957538살

이쪽에서는 신비한 능력이 펼쳐지고 있어요.



밤바다의 기사  
710살



모자가 빛난다구!



투명하게 되어 내 모습을 숨길 수 있지!



마술사 미조  
50 살



숨을  
숨을  
마!



문해파리

9999999999 살



◆ 레인보우 라이터맨  
바다에 쓰레기가 없어질 때까지

◆ 물뿌리개 슛슈  
2 살

내 앞 예쁘지?



저쪽에서는 귀여운 괴물들이 나왔어요.



꽃들잉  
100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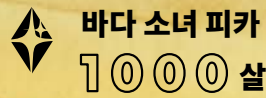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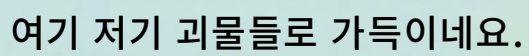
오페레톤  
666 살



우후훗

바다 소녀 피카  
10000 살









그러더니

숨~

한 마리의 괴물이 재빠르게 날아왔어요.

“제왕님~!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 녀석이 있습니다”







어둠의 마브로스  
바다에 쓰레기가 없어질  
때까지

“뭐라고!?” 박쥐 제왕이 말했어요.  
“모두들 나를 따르라!”





맞아 맞아!

“네 녀석들!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가서 분리수거 하지 못하겠는가!  
바다의 생명들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져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어어...죄...죄송합니다”



“박쥐 제왕, 혹시 너는... 아까 그 인간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고 싶었을  
뿐이었구나...”

빨강맨과 박쥐 제왕은 서로가 바다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어둠의 괴물들과 빛의 괴물들은 힘을 합쳐 바다를 지켜 나기로 했습니다.



## 우리가 ‘바다 쓰레기 괴물들’을 제작하며 생각한 것



2024년 여름방학, 이시카와현의 아이들이 가까운 바다에서 해양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 해양쓰레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에 등장하는 바다 쓰레기 괴물들입니다.

올해는 빛의 괴물들과 어둠의 괴물들이라는 테마 속에서  
개성적인 모습과 그 이야기를 통해 바다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세계를 잇는 단 하나의 바다이기에 전세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바다를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괴물들을 만들기 위해 즐겁게 쓰레기를  
주울 수 있었어요! (8세)



바다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괴로워하니깐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10세)

바다에 떠내려간 쓰레기가 바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줄 거예요. (11세)



바다가 깨끗하지 않아서 속상했어요. 바다를 쪽  
소중히 지키고 싶어요. (7세)





「世界へ旅する絵本ボート」は「絵本」を通じて、  
こどもたちの「世界の海」への興味を広げ、  
世界と協力して海を守ることの大切さを届けます。

The "World Traveling Picture Book Boat" aims to  
get children interested in the world's oceans,  
using picture books to share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protect our oceans.

プロジェクトのお知らせ・ニュース・絵本の紹介は  
<https://www.web.hokkoku.co.jp/ehonboat/>



## ひょうちゃくモンスター

ひかりとやみのたたかい??

Debris Monsters - The battle between light and darkness!?

2025年1月発行

製作 親と子の絵本ワールド イン・いしかわ実行委員会、北國新聞社

監修・作画 竹与井かこ  
デザイン 吉田憲司・矢口莉子 (TSUMASAKI)  
ディレクション 北澤いづみ (日本エージェンシー)  
編集 高滋央・高森康太 (日本エージェンシー)  
翻訳 Jennifer Hakamada

企画 高西順子 (日本エージェンシー)

お問い合わせ [ehonboat@nippon-ag.co.jp](mailto:ehonboat@nippon-ag.co.jp)

漂着モンスターキャンペーン応援企業

Debris Monsters Campaign Corporate Sponsors



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財団「海と日本プロジェクト」の  
サポートを受けて実施しています。

This initiative is made possible with the support of  
The Nippon Foundation through their  
"Umi-to-Nippon Project (The Ocean and Japan Project)".



이 프로젝트는, 닛폰재단의 "바다와 일본"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괴물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

SEI Fukurou Haruharu Nomunomu  
Kohana Shōei Chippee NOA OOTOKU  
Takeru Kodai Yuiton T Matsu Ou-chan  
Suzupea Haruma Chip Koya Minamoto Kento  
Noyama Kenta T. Sakura Ryōkei Ichika  
Akito Haruto Fumi-chan Arata Time Traveler  
Yūma Minyamaru Hanakasasou

## 찾을 수 있나요?



작은 신호등

유리구슬

## 노란 플라스틱 꽃

## 물고기 모양의 플라스틱 조미료통

## 노란 빨래 집계

안경

배드민턴 셔틀

조개껍질 펜던트

이름

치솔



## Dear Friends, From Ishikawa, Japan

저희가 사는 곳, 이시카와 현은 바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은 바다에서 놀며 매년 여름을 지냅니다.

일본에는 바다에 관한 그림책들이 많습니다.  
그림책은 우리가 모르는 "바다 너머의 세계"와 "바다 속의 세계"를 가르쳐줍니다.  
그림책을 통해, 이시카와 현의 바다와, 저희들의 바다에 대한 생각이, 바다 너머의  
친구들에게 전해져,  
전 세계 모두가 함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